

우리나라 중년 남성과 여성의 노후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 - 베이비 붐 세대를 중심으로 -

조 성 숙 · 서 훈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Research on the Differences of Perception on Retirement between Middle-aged Men and Women -Focusing on the Baby-Boom Generation-

Cho, Sung Sook · Suh, Hoon
Dept. of Gerontology,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Seoul, Korea

ABSTRACT

This research was based on surveys about differences of perception on retirement among the babe-boomers. Middle-aged men and women in their 40s' and 50s' residing in metropolitan areas centering around Seoul were the main targets for the surveys. Results indicated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level of perception and expectation about their retirement. More specifically, men noted physical health, economic sufficiency and work as significant factors for happy retirement. Women, on the other hand, answered economic sufficiency first, and then physical health and relationship with spouse as the important variables for retirement. In addition, men and women portrayed different expectations for difficulties of retiremen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is research proposed possible national, social, corporate, and individual approaches for secure retirement of the middle-aged baby-boom generation.

Key words: middle age, baby boom generation, preparation of retirement, difference on perception of retirement

I.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유엔이 지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통계청 2000), 평균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 또한 의학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증대, 영양학적인 개선 등에 힘입어 총 인구대비 노인인구의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강유진 2005). 이를

구체적인 통계에 근거해 살펴보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총 인구의 10.8%로 10년 전 6.6%에 비해 3.7% 증가하였고. 이 추세대로라면 2018년경에는 14% 진입으로 고령사회, 2026년경에는 20% 돌파로 초 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2020년경에는 노인인구가 유년 인구를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도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05).

2010년 현재 남자의 기대수명이 75.9세, 여자의 경우 82.5세(통계청 2010)로 조사되었고, 이는 1960년 남자 51.1세, 여자 53.7세였던 것에 비하면 50년 사이 무려 25세 이상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은퇴를 60세로 규정한다고 할 때 전생애의 약 1/4가량을 노년기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가 가져오는 문제 중 주목해야 할 문제는 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 베이비 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중년세대의 은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통상적으로 한국 전쟁이 끝난 2년 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집단을 지칭하고 있다. 이 기간 중 태어난 인구는 약 712만 명으로 총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인구집단이며, 남성이 약 365만 명, 여성이 약 347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전후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빈한한 환경에서 태어나 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과 군사 정권하에서 획일화되고 전제적인 이념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과 경제적 고도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세대이다(황승일 2000). 또한 이들은 20세기말 충격적인 IMF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으면서 어느덧 중년의 나이에 이르게 되었고 이른바 '희망퇴직', '명예퇴직'이라는 생소한 사회적 흐름에 휩쓸리면서 '무대에서 퇴장'이라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다(박선희 2010).

위로는 봉건적이고 전통적 사고에 젖어 있는

부모 세대와, 아래로는 자유분방하고 자아의식 및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자녀 세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로, 은퇴 후를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비한 후 은퇴할 수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들의 교육 및 결혼 등을 지원해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정작 평균 수명의 연장에 기인하여 늘어나는 자신의 노후에 대하여는 준비할 여력이 없는 것이 이들이 당면한 문제인 것이다.

인구통계학적으로 총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노인들의 행복하고 의미있는 노후준비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제 곧 은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우리나라 중년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까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장년층을 주 대상으로 실질적인 노후준비 현황과 의식을 파악 분석하고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기태 2004; 김성숙·박운아 1992; 김윤정·최윤희 2004; 김인숙 2004; 배계희 1989; 성말순 2005; 송석전 2004). 그동안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연구는 국내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적 진전은 괄목할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년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적 측면,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주로 노후준비의 영역에 대한 연구나 은퇴에 대한 개인적,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김애순·윤진 1995; 김은미 2001; 지연경·조병은 1991; 한희자·강은실 2001), 노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노후준비의 여러 영역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중년층이 앞으로 다가올 노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부부간의 인식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신화용(1996)은 그의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는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은퇴 이

후 노후생활에 대한 지각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은퇴 이후의 노후 기간의 부부관계의 변화를 보려면 부부 모두의 인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붐 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중년세대 남성과 여성간의 노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후기간도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는 노후기간의 대부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내야 할 것이다. 배우자는 인생 말년의 충실한 동반자로서 인생의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소중한 존재이다(Anderson 1992). Lee(1988)는 그의 연구에서 배우자와 함께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행복하고 의미있는 인생 말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간의 노후의 삶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을 확인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 은퇴를 앞둔 우리나라 중년 남성과 여성의 노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노후의 삶에 대한 기대 정도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가?

넷째, 노후생활의 삶의 질에 대한 예상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검토

1. 베이비 붐 세대의 정의

베이비 붐 세대란 일반적으로 ‘특정시기에 출산율이 현저하게 높아져서 출생아수가 급증하는 사회적 현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베이비 붐 세대의 기원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의 인구 집단을 지칭한 데서 유래한다(김영민 2006). 이 시기에 태어난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약 7,7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총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인구집단이다. 또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는 이른바 ‘단카이 세대’로 호칭되며 1947년부터 1949 사이에 태어난 인구집단으로 총 인구의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각국의 베이비 붐 세대가 가지는 공통점은 총 인구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큰 관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 온 집단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이른바 전후세대로 ‘전쟁 베이비’, ‘팍시세대’, ‘히피세대’ 등으로 불리며 2차 대전 이후의 미국사회에 커다란 이슈를 제시해 왔는데, 6,70년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함인희 2002). 방하남 등(2010)은 그들의 연구에서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그 기간이 3년으로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짧지만, 제 2차 세계대전의 패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세대라는 점에서 군국주의적 사회구조 하에서 성장한 이전 세대와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대전의 패전 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후 한국전쟁 등의 외부적 요인을 발판삼아 급속한 국가 재건과 경제 발전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하여왔으며, 그 후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공헌하였고, 그 성장의 열매 또한 향유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대부분 현역에서 은퇴하여 노년층으로서 이른바 실버산업의 주요 소비자로서 여전히 일본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2.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의 특징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학자나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한국전쟁 이후

인 1955년~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 기간에 태어난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약 712만 명으로 총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으로 남성이 약 365만 명, 여성이 약 347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통계청 2010). 비슷한 직전 기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1947년부터 1954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보다 약 180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특이하게 구별되어 불리어지는 이른바 '58년 개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후 몇 년 동안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다가 1963년 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며 인위적으로 출산억제를 유도하기까지 신생아의 증가는 지속되었고 이들이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표 1 참조).

3.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의 성장배경과 특성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약 40여 년의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국가설립 과정 중 불거진 극심한 좌우 이념의 대립, 38선을 가운데 둔 남북 간의 독자적인 정부수립과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동족간의 참혹한 전쟁이었던 한국전쟁 등 사회적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에 태어나 유년기에는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등 사회적 정

치적 격동기와 함께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던 시기(1950년 대 후반~1960년대 초반)를 보냈으며, 그 후 1960년대 권위적 군사정부에 의해 주도된 새마을 운동과 수차례 연속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시화, 산업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었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가적 대변혁의 시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70년대 '유신'으로 대표되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탄압과 쇠퇴의 암흑적 상황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198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로부터 시발된 신군부의 등장에 대한 항거,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정치적 격변기로, 이러한 시대적 변혁을 몸으로 체험해 온 격동의 세대이기도하다. 방하남 등(2010)은 그들의 연구에서 이들을 또한 민주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열정으로 이른바 '넥타이 부대'의 주축으로 사회 민주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세대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정호성 등(2010)은 그들의 연구에서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를 사회 각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핵심적 세력으로 시대를 이끌던 장년세대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축세력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IMF라는 초유의 국가 경제적 위기상황을 맞아 그간 평생직장이라 굳게 믿고 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생소한 개념의 첫 희생

표 1. 2009년 베이비 붐 세대의 인구분포 규모

구분	추정인구	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임금근로자)
		고용률(%)	수(명)	비율(%)	수(명)	
합 계	7,125,437	74.6	5,317,293	43.7	3,117,048	2,200,245
1955년생	663,319	65.9	437,127	34.5	228,845	208,282
1956년생	708,728	74.0	523,750	42.6	301,918	221,832
1957년생	742,633	74.0	548,806	42.6	316,362	232,444
1958년생	784,111	74.0	579,458	42.6	334,031	245,427
1959년생	823,550	74.0	608,603	42.6	350,832	257,771
1960년생	848,690	74.0	627,182	42.6	361,542	265,640
1961년생	858,141	78.0	669,350	47.9	411,050	258,300
1962년생	854,550	78.0	666,549	47.9	409,329	257,220
1963년생	841,625	78.0	656,468	47.9	403,138	253,329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2009

자로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명분으로 직장
과 사업장에서 밀려나는 세대이기도 하다고 언급
하고 있다.

이들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의 이념적 성향과
집단적 성격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유교주의적
이념과 집단적 사고에 익숙한 ‘전 세대’와 진취
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후발 세대’사이
에 끼어서 양 세대의 눈치를 보고 모두에 적응해
야 하는 이른바 ‘깁 세대, 샌드위치 세대’ 이기도
하다. 정치 사회적 성향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
기는 하나, 한편 새로운 문화와 사회적 경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응하려는 진보적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는 19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후진국에서 개발도
상국으로, 또 중진국을 넘어서서 현재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주축 세대로, 직장에서의 성공
이 곧 인생의 성공이라고 굳게 믿고 달려왔다.
이들은 비교적 평생직장의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
던 시기에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연공서열이
중시되는 보수적 직장 분위기에 익숙한 세대이
다. 이들은 또한 가정의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었던 사회적 상황에서 이른바 ‘홀륭한 부
양자’가 되고자 노력했던 마지막 세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가
치관 아래 직장과 직업은 자신의 ‘부양자로서의
정체감’을 정립하고자 노력해 온 과정에서 성공
과 실패를 평가받아 온 장(場)이었던 것이다(이소
정 2009).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앞에서 살펴 본 바
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와는 다
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가
족의식과 급격한 인구 노령화의 문제, 기대수명
의 획기적 연장과 가구당 1.5명을 넘지 못하는
저 출산 문제등과 함께 정년을 미처 채우지 못하
고 일터에서 밀려나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은퇴를 앞 둔 베이비 붐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
다(정경희 2011).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2010년을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인 은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고, 본인
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접하게 되었다. 사회적 제도 하에서의 은
퇴라고 하는 개념은 농업중심에서 본격적인 산업
화로 전환되면서 이른바 많은 농민들이 도시근로
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서구의 19세기부터 인
식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하나의 필연적인 사회현
상의 하나로 자리잡은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규정
할 수 있다.

4.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2010)에 따
르면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노후준비를 30대부
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고, 노후에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에 대한 준비의식
과 실제 준비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준비는 경제
적 준비였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강유진(2005)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년
남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강유진
(2005)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문제로 건강문제 49.5%, 경제적 문제
44.5%로 응답하여 건강과 경제적 문제를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부양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73.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생활비의 마련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 스
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66.5%, 국가와 사
회의 지원이 32.3% 인 반면, 가족/자녀라는 응답
은 1.3%로 주목해야할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소정(2008)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약 70% 정도로,
사회조사(2009)패널에서의 80%와는 다소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노후보장패
널(2009)의 조사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 중 41%
정도만이 실질적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존의 조사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을 주요 수단으로 꼽았다. 하지만 향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득이 감소할 것을 생각하는 응답이 69.5%인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응답보다는 큰 차이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통계청 2009).

2009년 국민연구관리공단이 조사하여 발표한 국민보장패널의 자료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들은 본격적인 노후생활이 시작되는 연령을 평균적으로 65.2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다수(82%)가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자녀세대와의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을 주 이유로 인식하고 있다.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 여부에 대하여서는 41.1%만이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경제적 준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노후준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현재 생활을 위한 지출과 자녀 교육비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노후를 준비할 만한 소득이 충분치 않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들이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야로 경제적인 문제를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후기간 동안 누구에게 자신을 의존하기를 원하는가는 질문에 자녀보다는 배우자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러한 연구조사는 은퇴를 앞 둔 중년층의 노후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들(강유진 2005; 김익균 등 2008; 황승일 2000)의 내용을 지지하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한 평생을 함께 살아왔고 마지막까지 옆에 있게 되는 배우자와의 관계와 친밀성, 정신적 교류 정도는 행복하고 의미있는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은퇴 이후 부부관계에 대한 많은 서구의 연구는 은퇴 후 공동의 여가활동, 상호 긍정적인 정서적 지원 등을 부부관계가 좋아지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장하고 있다(Lee 1988; Vinick et al. 1991). 또한 Duval (1977)은 노년기란 자신의 은퇴와 더불어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큰 생활사건이 되는 시기로 무엇보다 부부관계가 가장 중심적이고 모든 생활의

표 2.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현황

조 사 문 항	응 답
주관적 노후시작 연령	65.2세
자녀와 노후 동거의향	원치 않음(82%)
자녀와 동거 원치 않는 이유	따로 사는 것이 각자의 생활방식이 지켜질 것 같아서(54%)
노후예상 최저 생활비	개인기준: 91만 7천 6백원 부부기준: 114만 2천 5백원
노후예상 적정 생활비	개인기준 ; 133만원 부부기준 : 207만 5천원
노후생활준비 여부	준비하고 있음(41.4%)
주된 노후생활비 준비방법 (복수 응답)	근로활동(38.2%) 본인 및 배우자의 공적연금(16.1%)
노후준비 충분성	충분하다(49.5%), 충분치 않다(50.5%)
노후준비가 충분치 않은 이유	1)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시급한 지출때문(58%) 2) 소득이 낮아서 노후준비의 여유가 없음(41%0
원하는 노후 부양자	배우자 > 자녀
노후대책시 가장 중요한 것	경제적 문제(62.7%) > 건강,의료(31.6%)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보장패널(2009)

기본이 되는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은퇴 이전에 상호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면 은퇴 이후에도 상호작용이 많아져 더 가까워지면서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Vinick와 Ekerdt(1991)은 소속감과 상호 의존성의 증가로 부부관계의 질이 예전에 비해 좋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 결혼생활을 통해 친밀감의 증대와 가치관이나 여가활동의 공유를 통해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Anderson 1992).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과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활용한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2011년 2월 남녀 합산하여 총 80부를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분석하여 설문내용을 수정한 후 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서울특별시 동북부 지역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들과 경기도 의정부시, 부천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1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약100일간에 걸쳐 연구자가 직접 면담하여 설문지 작성을 의뢰하거나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여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일부는 연구자의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본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지 작성 및 수거를 의뢰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베이비 붐 세대인 1950년 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간에 태어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베이비 붐 세대 남성과 베이비 붐 세대 남편을 가진 여성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베이비 붐 세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나 중년세대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0~50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을 밝힌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배부된 설문지는 남성용 312부, 여성용 298부로 총 610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수거된 설문지는 남성용 285부, 여성용 272로 총 557부였다(회수율 91.3%). 수거된 설문지를 세밀히 검토하여 부실하게 기재되었거나 통

계 처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남성용 21부, 여성용 20부를 제외시킨 후 남성용 264부, 여성용 252부가 본 연구에 활용되었다. 통계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다양한 계층, 즉 학력과 연령, 직업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설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여 졸속이나 부실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도록 고려하였으며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조력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안내를 통해 조사의 취지와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본 논문은 설문을 통해 수집된 내용 중 논문의 주제인 중년층의 노후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에 관련된 내용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조사 대상 남성 264명 중 만 46~50세가 109명으로 41.4%, 만 51~55세가 89명으로 33.8%. 여성의 경우는 51~55세가 84명으로 33.3%, 46~50세가 79명으로 31.3%를 차지하고 있어 남녀 모두 베이비 붐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남녀 평균 고졸이 42.6%, (초)대졸 이상이 50.8%로 고졸 이상이 93.4%의 고학력 현상을 보이고 있다. 월 평균 가계소득은 400~700만원이 48.5%, 월 평균 지출액은 200~400만원이 47.6%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주 조사대상지역이 수도권인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종교는 기독교인이 54.3%, 불교11.8%, 천주교 9.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직업은 남성을 대상으로만 조사하였으며, 일반 자영업이 49명으로 18.6%. 대기업 임직원 15.2%, 금융업 종사자 13.3%, 중소기업 임직원이 10.6%의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이 역시 조사지역이 서울과 수도권인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3. 조사도구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문항은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otal	남자	여자
	N (%)	516 (100)	264 (51.2)	252 (48.8)
연령	만 40~45세	61 (11.8)	38 (14.4)	23 (9.1)
	만 46~50세	188 (36.5)	109 (41.4)	79 (31.3)
	만 51~55세	173 (33.6)	89 (33.8)	84 (33.3)
	만 56~60세	67 (13.0)	22 (8.4)	45 (17.9)
	만 61세 이상	26 (5.0)	5 (1.9)	21 (8.3)
최종학력	초졸	4 (0.8)	3 (1.1)	1 (0.4)
	중졸	30 (5.8)	10 (3.8)	20 (7.9)
	고졸	220 (42.6)	76 (28.6)	144 (57.1)
	초(대)졸	217 (42.0)	136 (51.5)	81 (32.1)
	대학원졸	45 (8.8)	39 (14.9)	6 (2.4)
월 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	27 (5.2)	14 (5.3)	13 (5.2)
	200~400만원	151 (29.3)	65 (24.7)	86 (34.1)
	400~700만원	250 (48.5)	126 (47.9)	124 (49.2)
	700~1000만원	66 (12.8)	43 (16.3)	23 (9.1)
	1000만원 이상	21 (4.1)	15 (5.7)	6 (2.4)
월 평균 지출액	200만원 이하	51 (9.9)	23 (8.7)	28 (11.1)
	200~400만원	246 (47.6)	120 (45.6)	125 (49.6)
	400~600만원	186 (36.1)	100 (38)	86 (34.1)
	600만원 이상	24 (4.7)	15 (5.7)	9 (3.6)
	잘 모르겠다	9 (1.7)	5 (1.9)	4 (1.6)
종교	기독교	280 (54.3)	134 (50.8)	146 (57.9)
	천주교	49 (9.5)	25 (9.5)	24 (9.5)
	불교	61 (11.8)	28 (10.6)	33 (13.1)
	유교/기타	5 (1.0)	5 (1.9)	0 (0.0)
	없다	121 (23.4)	72 (27.3)	49 (19.4)
			남자	
	N (%)		264 (100)	
직업	서비스 자영업		49 (18.6)	
	100인 이상 대기업 임직원		40 (15.2)	
	금융업(은행, 보험, 증권 등)		35 (13.3)	
	기타		21 (8.0)	
	유치원/초중고 교사		18 (6.8)	
	요식업 경영		13 (4.9)	
	일반 공무원		12 (4.5)	
	군인/경찰		12 (4.5)	
	중소기업 경영주		11 (4.2)	
	건설업		9 (3.4)	
	대학교수/연구원		8 (3.0)	
	인테리어, 조경업		5 (1.9)	
	종교인		3 (1.1)	

연령, 학력, 월 평균 가계소득, 월 평균 지출액, 종교 및 직업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명목 척도로 측정하였다.

2) 노후에 대한 인식

노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차이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조건, 예상되는 노후기간의 어려움, 예상 노후기간, 예상 노후자금 등은 빈도측정을 실시하였다.

3) 은퇴 이후 노후의 삶에 대한 인식

노후의 삶에 대한 기대와 삶의 질에 대한 예상에 대한 문항은 8문항으로, 조사에 활용된 문항은 ‘나는 은퇴가 기다려진다’, 노후생활이 현재의 생활보다 더 좋을 것이다’, 배우자와 함께 노후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다’5점)에서 ‘보통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Likert척도의 등간비율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기대가 높다. 전체 신뢰도는 크롭바흐 알파 계수가 0.799으로 적절한 신뢰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성별에 따른 행복한 노후조건의 차이 검정 명(%)

	성별		전체	X ²	
	남자	여자			
행복한 노후를 위한 조건	경제적	79	109	188	15.471
	여유	(29.8)	(43.3)	(36.4)	
	신체적 건강	120	103	223	
	원만한 대인관계	(45.4)	(40.9)	(43.2)	
	적절한 역할(일)	12	10	22	
	부부간의 관계	(4.6)	(4.0)	(4.3)	
	부부간의 관계	30	11	41	
		(11.5)	(4.4)	(8.0)	
		23	19	42	
		(8.8)	(7.5)	(8.2)	
전체	264	252	516		
	(100.0)	(100.0)	(100.0)		

**p<.01

IV. 연구결과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앞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1: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차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에 서로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신체적 건강이 45.4%, 경제적 여유 29.8%, 적절한 역할과 일 11.5%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신체적인 건강을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한 조사결과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기존연구와 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학력의 중산층이 대부분인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성의 경우는 경제적 여유 43.3%, 신체적 건강 40.9%, 부부간의 관계 7.5%의 순으로 응답하여 남녀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부부간의 관계를 주요 요인으로 꼽은 결과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nderson(1992)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요 조건으로 배우자와의 원만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족관과 부부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본인의 행복요인에 배우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문제 1-2: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차이

노후 생활에서 가장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차이는 조사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성별에 따른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차이 검정
명(%)

	성별		전체	X ²	
	남자	여자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경제적 어려움	62 (23.4)	83 (32.8)	144 (28.0)	49.798
	건강의 상실	76 (28.7)	110 (43.6)	186 (36.0)	
	역할 상실/할 일이 없는	81 (30.7)	32 (12.8)	113 (21.9)	
	소외나 고독의 문제	41 (15.7)	13 (5.2)	55 (10.6)	
	부부간의 갈등	4 (1.5)	14 (5.6)	18 (3.5)	
	전체	264 (100.0)	252 (100.0)	516 (100.0)	

***p<.001

조사결과는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역할의 상실이나 할 일이 없음으로 인한 무력감이 30.7%, 건강의 상실이 28.7%, 경제적 어려움이 23.4%의 순으로 노후생활의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건강의 상실 43.6%, 경제적 어려움이 32.8%, 역할의 상실과 무력감 12.8%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년남성의 경우 가장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 세대이며, 따라서 은퇴 이후 할 일이 없어지고 소득이 끊어짐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식에 심각한 회의와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심리가 조사내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의 경우 중년기를 지나면서 폐경기를 경험하는 등 여성성을 잃게 되고 잔병치레가 많아짐을 경험하

게 되면서 신체적인 건강을 노후에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문제 1-3: 노후의 삶에 대한 기대 정도에 대한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노후의 삶에 대한 기대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에 활용된 문항은 ‘나는 은퇴가 기다려진다’, ‘배우자와 함께 노후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등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다’(5점)에서 ‘보통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Likert척도의 등간비율척도로 확인하였는데, 남자는 평균이 2.79이고, 여자의 평균은 2.37로 남자일 경우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응답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남성의 경우 현재의 직업과 직장에 대한 만족도 여부가 노후에 대한 기대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국민보장패널(2009)의 조사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현재 직업에 종사하는 빈도가 낮음으로 해서 미래의 노후에 대한 불안 정도가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성별에 따른 노후의 삶에 대한 기대의 차이 검정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값
남자	264	2.79	0.960	5.533***
여자	252	2.37	0.723	

***p<.001

연구문제 1-4: 노후생활의 삶의 질에 관한 예상에 대한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

표 7. 성별에 따른 노후의 삶의 질에 대한 예상의 차이 검증

	성별		전체	X ²	
	남자	여자			
예상되는 노후생활 의 삶의 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쁠 것 같다	16 (6.1)	14 (5.6)	30 (5.8)	16.852
	지금보다 조금 더 나쁠 것 같다	57 (21.6)	50 (19.8)	107 (20.7)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78 (29.5)	116 (46.0)	194 (37.6)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85 (32.2)	54 (21.4)	139 (26.9)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28 (10.6)	18 (7.1)	46 (8.9)	
	전체	264 (100.0)	252 (100.0)	516 (100.0)	

**p<.01

현재와 비교하여 미래의 노후기간의 삶의 질의 수준에 대한 예상과 기대는 표 7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녀 모두 현재보다 좋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남 72.3%, 여 74.5%).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베이비 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중년층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그 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현재의 삶의 질에 대한 불만과 불만족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은퇴를 앞 둔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남녀 중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관련 연구는 남녀의 구분이 없이 전체적인 측면으로 접근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는 은퇴를 앞 둔 남성 중년세대의 시각과 여성의 시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점이 특징이고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살펴 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를 앞 둔 중년세대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한 인식이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의 경우 신체적 건강이 45.4%, 경제적 여유 29.8%, 적절한 역할과 일 11.5%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신체적인 건강을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한 조사결과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기존연구의 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여러 가지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의 경우에는 중년 이후 자신의 건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할 수 있음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경제적 여유 43.3%, 신체적 건강 40.9%, 부부간의 관계 7.5%의 순으로 응답하여 남성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실제로 가정생활을 운영해 가는 주체로서 경제적인 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행복한 노후를 결정하는 요인 중 배우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에 비해 배우자와의 관계와 상호 지원 및 지지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의식을 경감시키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 기업과 개인이 함께 그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역할의 상실이나 할 일이 없음으로 인한 무력감이 30.7%, 건강의 상실이 28.7%, 경제적

어려움이 23.4%의 순으로 노후생활의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성은 역할의 상실과 할 일이 없어짐에 따른 무력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 가장 중심의 전통적인 가정 형태에서 성장하고 가정에 대한 가장의 책임을 요구받으며 성장하고 살아 온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심리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건강의 상실 43.6%, 경제적 어려움이 32.8%, 역할의 상실과 무력감 12.8%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건강의 상실을 노후에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와 삶의 질에 대한 예상 정도에서도 남녀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은퇴 이후에 대한 기대정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삶의 질에 대한 예상은 남녀 모두 응답자의 70% 이상이 현재의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이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중년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은퇴 이후의 노후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으며,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은퇴 이전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준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유진(2005)과 김애순·윤진(1995)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크게 늘어나게 될 중년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국가와 사회, 기업, 그리고 개인이 어떠한 준비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부부가 함께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은퇴를 앞 둔 중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내실있는 노후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몇몇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관련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나 일회성의 이벤트형의 성격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본 연구의 결과로 확인된 바, 지속적이고 실친 가능한 부부관계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부부가 함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종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내용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전국적이고 직업적으로 모든 분야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점은 추후 후속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사대상을 아직 현업에서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로 한정하여 은퇴 이후의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연구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의 방향을 베이비 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중년층의 노후에 대한 남성과 여성 간의 인식의 차이에만 초점을 맞춰 분석함으로써 조사결과의 객관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년 남성과 여성간의 노후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항목이 다양하지 못하여 중년 남성과 여성의 노후인식에 대하여 충분하고 다양하게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은 추후 연구에서 반드시 보완하여 보다 충실하고 다양한 후속연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세대의 은퇴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연구 분석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한국의 중년세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는데 작은 기여가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시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유진(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 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 김기태(2004) 장년층 노후준비 태도에 대한 연구. 호서대 석사논문.
- 김성숙·박운아(1992)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 행동과 관련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3(2), 45-57.
- 김애순·윤진(1995) 은퇴 이후의 심리·사회적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15(1), 141-158.
- 김영민(2006) 베이비 붐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
- 김윤정·최윤희(2004)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4, 197-213.
- 김인숙(2004)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 박선희(2010) 은퇴준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준·김지경·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붐세대의 근로생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4.
- 배계희(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 성말순(2005)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 송석전(2004) 중, 장년층의 노후준비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논문.
- 이소정(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147), 72-80.
- 장은정(2005) 부부간 인식차이에 따른 은퇴 후 가족관계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경희(2011)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포럼(172), 19-27.
- 정경희·이소정·이윤경·김수봉·선우덕·오영희·김경래·박보미·유혜영·이은진(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30(18).
- 정호성·강성원·문외솔 외(2010) 베이비붐세대 은퇴의 과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 연구소.
- 지연경·조병은(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 가정학회지 29(2), 217-240.
- 통계청(2000) 인구조사센서스.
- 통계청 보도자료(2004)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 붐 세대의 특징.
- 통계청 인구조사센서스(2005) 베이비 붐 세대의 개인특성.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9) 베이비 붐 세대의 소득 분포.
- 통계청 보도자료(2010) 통계로 본 베이비 붐의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10.5
- 한희자·강은실(2001) 은퇴자들의 은퇴 후 삶의 상태 변화. 정신간호학회지 10(2), 203-219.
- 함인희(2002) 가족 세대갈등의 역동적 무대. 사회과학원 14(3) 통권 54호, 191-213.
- 황승일(2000) 초기노인의 노후 관련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 카톨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nderson TB(1992) Conjugal support among wife and retired wife couples. Families and Retirement. Newbury Park: Sage, 174-188.
- Duval EM(1977)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J.B Lippincott. 385-406.
- Lee GR(1988) Matirial Satisfaction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131-139.
- Vinick BH, Ekerdt DJ(1991) Retirement: What happens to husband-wife relationship?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4, 23-40.